



JARA NEWS

February 2019, No. 132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1 F. Yaesu KT Bldg. 1-1-8,
Yaesu, Chuo-ku, Tokyo JAPAN 103-0028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변혁을 기회로 2019년 새해 인사



JARA대표이사역 사장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2018년은 주식회사 JARA에 있어 합병으로부터 5년이 되는 시기이며 더불어 제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자동차 재활용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운영 회사의 합병이라는 시도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5년이었지만, 예상했던 것 이상의 합병 효과가 안팎으로 실현된 5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구(旧) SPN 회원님, 구(旧) 에코 라인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 특히 토요타통상 관계자분들의 막대한 지원과, 협력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던 작년은, 회원 수의 확대, 시스템 유통 금액 확대,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목표를 조직 전체의 협력에 의해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원 기업을 맞이할 수 있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나아가, 2018년의 사용 후 자동차의 인수 대수의 전년 대비 증가도 뒷받침되어, 회원의 사용 후 자동차 거래 대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도는 입고 확대에 더욱더 노력을 나아가겠습니다.

2019년에 대해서는, 여러 시책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토요타통상과 연계한 사용 후 차량(ELV) 처리 체제의 구축입니다. 업무 효율의 개선으로, 재활용 부품 생산·판매에 있어 작업 시간의 단축 등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ATRS(아틀라스)'와 'SPL(슈퍼 라인)'의 두 시스템은 IoT(사물인터넷) 대응과 시스템 개선을 합니다. 재활용 부품의 유통 면에서는, 시스템 내부의 유통 부품의 품질 기준 레벨의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더욱 향상된 기술력으로, 손해 보험 회사의 연수 센터의 협력을 받아, 기술 강습의 표준화를 시도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마케팅 전략이나, 대형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시스템 대응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토요타통상 리사이클을 비롯한 토요타통상 그룹 관련 회사와 연계한 대응을 해 나아갑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라가고 있지만, JARA 회원 기업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0일)

경제산업성, MaaS보급 가속으로

경제산업성은, IoT(사물인터넷)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제공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 = 서비스로서의 이동)의 보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한 대응 사례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자가 공유함과 더불어, 장래에 있어 컬래버레이션이 되는 계기가 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MaaS와 자동 운전과의 융합에 대해서도, 지식인들과 검토할 예정이다.

2월을 '스마트 모빌리티 추진 월간'으로 자리매김하여, MaaS의 보급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전개한다. 15일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지역 연계 회의'를 도쿄 도내에서 개최. 지자체와 사업자, 정부 관계자들이 현재의 대응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참가자들의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도쿄에서 2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라이드셰어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사업자와 주차장 예약 앱의 전개 사업자, 클라우드형 택시 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자 등,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모아,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이벤트 '벤처·카페·도쿄 모빌리티 피치'를 개최한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얻은 최신 동향과 요망에 대해서는, 3월에 개최할 예정인 IoT(사물인터넷)와 AI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에서 논의를 전개하며, 2019년도 이후의 액션 플랜 책정 등의 논의에 반영한다. 이 연구회는 MaaS와 레벨 4 이상의 무인 자동 운전 서비스 차의 융합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작업 부회를 설치하여, 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22일)

VW와 포드, 정식으로 제휴 합의

[미국 디트로이트 = 미즈시마 도모야(水島 友哉)] 미국의 포드·모터와 독일의 폭스 바겐 (VW)은 15일, 글로벌 규모의 포괄적 제휴에 정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포드의 픽업 트럭, VW의 도시형 밴을 상호 공급하며, 2022년에 판매를 시작한다. 또한, 자동 운전과 전기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의 공동 개발에서도 제휴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디트로이트에서 개최중인 북미 국제 오토쇼 (NAIAS)에 맞춰 실시한 전화 회견에서, 포드의 짐해켓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VW의 허버트 디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양사는 2018년 6월에 포괄적 제휴를 위한 각서를 교환했다.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해켓CEO와 디이스CEO를 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자본 제휴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사는 2023년 이후 실적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다. 양사가 2018년에 판매한 상업용 차의 대수는 120만 대를 넘었으며, 얼라이언스는 상용차 영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업무 제휴가 된다. 자동 운전 기술 등의 선진 기술의 제휴는, 앞으로 수개월 간을 걸쳐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7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8년12월

2,801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전생애 환경평가 기법(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현지 시간 14일에 포드의 부스 앞에 나란히 서 있는 포드의 해켓CEO(왼쪽)와 VW의 디이스 CEO(오른쪽)



학생들의 상상력을 유형화 했다

일본 자동차대학교, 재활용 부품 활용 커스터마이즈 차를 오토 살롱에

일본 자동차대학교(NATS, 아베 아키라(矢部 明) 이사장·교장, 지바현 나리타시(千葉県 成田市))는 11~13일에 지바시 미하마구(千葉県 美浜区)에 있는 마쿠하리멧세(幕張メッセ)에서 개최된 '도쿄

오토 살롱 2019'에, 재활용 부품을 활용하여 커스터마이징한 출력 자동차를 전시했다.

NATS는, 매년 많은 커스터마이징 카를 출품하고 있다. 오토 살롱의 출력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도쿄 국제 커스텀 카 콘테스트'에서는, 역대의 출력 차량이 수상하여, 커스터마이징에서는 독자적인 창의력과 높은 기술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학생이 베이스가 되는 차량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에,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올해 전시된 차량 10대 가운데, 재활용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차가 NATS FTO Ver.RCS'. 베이스 차량으로 사용된 미쓰비시 자동차의 FTO'전륜구동차(FF)의 자동변속기(AT) 차에, 미쓰비시 자동차의 '갤랑'의 4륜구동차(4WD)의 V 형 6기통 엔진과 수동변속기(MT, Manual Transmission), 구동계를 이식했다. FTO와 갤랑으로는, 현 상태로는 이식할 수 없는 부품이 있어, 필요한 부분에 재활용 부품을 사용했다.

이번에 사용한 주요 재활용 부품은, 드라이브 샤프트는 미쓰비시 자동차의 랜서 에블루션 4', 스티어링 너클은 랜서 에블루션 6', 로어암은 랜서 에블루션 6.5'의 부품이 활용되었다. 또한, 연료 탱크는 랜서 에블루션 10'용 경비용 탱크의 재활용 부품을 트렁크에 배치하는 등, 재활용 부품이 정비나 판금 이외의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하나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완성된 차량은, 트레드 확대에 따른 오버 펜더화 등 내외장의 마무리에서도 학생들의 세심한 작업을 엿볼 수 있었다. 리더 역인 NATS 카스터마이징과의 3학년인 니시지마 다카시(西島 隆) 씨는 "엔진은 FTO의 4WD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꿈을 유형화한 것에 대해 미소를 보였다.

NATS의 커스터마이징과에서는, 오토 살롱에 출품한 차량에 대해 공인 차검을 취득하여, 테스트 주행과 졸업 여행을 겸한 테스트 런 캐러밴을 실시하여, 커스터마이징카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7일)



올해 37번째를 맞이하는 '오토 살롱'에는 426사가 출품

오토 살롱 2019 개최 자동차의 즐거움을 발견하자

도쿄 오토 살롱 2019'가 11일, 마쿠하리 멧세(지바시 미하마구(千葉市 美浜区))에서 개막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들이 커스텀 카의 '제전'으로 1980년대에 시작한 이 이벤트는, 최근 들어서는 젊은 연령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폭넓은 인기를 획득. 자동차 메이커 각사가, 고객과의 귀중한 만남을 이루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여, 출시가 임박한 신형 자동차와 커스터마이징카, 컨셉 카를 선보이는 장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도 각사가 최신 차량을 공개하며, 애프터 마켓 각사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아이디어를 경쟁했다.

이번에 37회째를 맞이하는 도쿄 오토 살롱은, 자동차 메이커와 커스텀 파트 메이커 등의 426사가 참가. 드레스업한 커스텀 카와 튜닝 카, 컨셉트 카 등 역대 최대인 906대가 회장을 장식했다. 동승 시승회와 콜렉터블 카 옥션(Collectable Cars Auction) 등 관련 이벤트도 늘어 방문객들이 즐겼

다. 자동차 메이커의 출품도 정착하여, 6사가 프레스 브리핑을 실시했다.

토yota 자동차는, 스포츠카 시리즈 GR'의 한정 모델인 마크 X GRMN'을 발표. 또한 다이하쓰 공업의 경형 오픈 스포츠카인 '코펜'을 베이스로 한 '코펜 GR 스포츠 컨셉'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토yota의 도모야마 시게키(友山 茂樹) 부사장은 "코펜은 가볍게 부담없이 GR을 즐기 위해 시판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토yota 그룹이 연계하여 GR시리즈의 차종군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개막하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시판 모델로 발표할 신형 '수프라'의 레이스 사양도 전시했다.

닛산 자동차와 자회사인 오택 저팬은 「엑스트레일」의 오택 사양'을 28 일에 발매. 지난해 도쿄 오토 살롱에서 참고 출품한 컨셉트 카가 방문객으로부터 호평을 얻었으며 'SUV 요구 가운데에서도 내장 디자인과 질감, 소재 등에서 고급 지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오택 저팬의 디자인 관계자)라는 점에서 시판화를 서둘렀다고 한다.

마쓰다는 신세대 제품의 제1탄이 되는 신형 마쓰다 3'(북미 사양차)를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아오야마 야스히로(青山 裕大) 상무 집행 임원은 "마쓰다 프리미엄의 실현을 향한 마쓰다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개발 책임자의 벳우 고타(別府 耕太) 씨와 디자이너 츠치다 야스타케(土田 康剛) 씨의 토크세션도 실시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대폭적으로 개량 후 가까운 시일내에 발매할 데리카 D:5'의 클린 디젤차를 선보였다. 후카자와 키요시(深澤 潔) 집행 임원은 "데리카는 유니크한 올라운드 미니 밴으로 일본



토yota는 'GR시리즈'에서 개발 중인 다이하쓰의 '코펜' 베이스의 모델 등을 전시

국내 판매에서 간판 차종이다."라며 신형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다이하쓰 공업은 경형 오픈 스포츠카인 '코펜'을 쿠페형 스타일로 마무리한 '코펜 쿠페'를 전시했다.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제품의 하드 루프를 장착. 개폐식 유리 해치를 통해 물건을 넣고 꺼내는 것도 가능하다. '도쿄 오토 살롱 2016'에 출품하여, 관람객 등 많은 유저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점에서 200대 한정으로 상품화하기로 했다. 11일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생산은 4월 이후를 예정한다.

스바루는, 스바루 테크니카 인터내셔널(STI (Subaru Technica International), 히라카와 요시오(平川 良夫) 회장, 도쿄도 미타카시(東京都 三鷹市))와 공동 개발한 '포레스터 어드밴스드 스포츠 컨셉'이나 '임프레자 STI 스포츠 컨셉'을 선보였다. 히라카와 사장은, 두 컨셉 모델에 대해 "방문객의 반응이 좋으면 (컴플리트 모델로) 시판화를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간 자동차 신문 1월 12일)



닛산은 '엑스트레일 오택'(오른쪽)과 '리브 오택 컨셉'을 출품



마쓰다는 마쓰다3'의 개발 책임자와 디자이너들이 토크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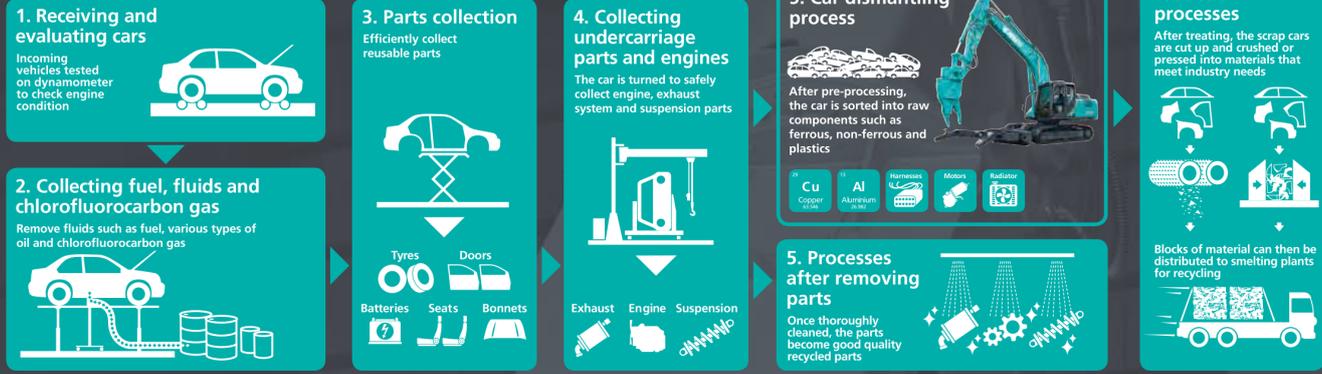


미쓰비시 자동차는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데리카D:5'를 공개



Dismantling process flow chart

How the Car Dismantling machine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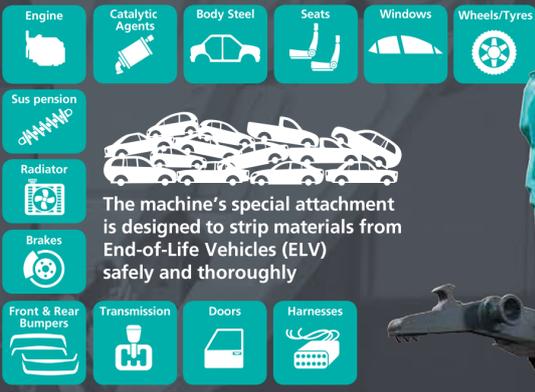
The Evolution of car dismantling industry by Kobelco

Four times* the vehicle dismantling capability compared with hand dismantling.

* In one day (Kobelco test figures)

15 vehicles >
One operative working by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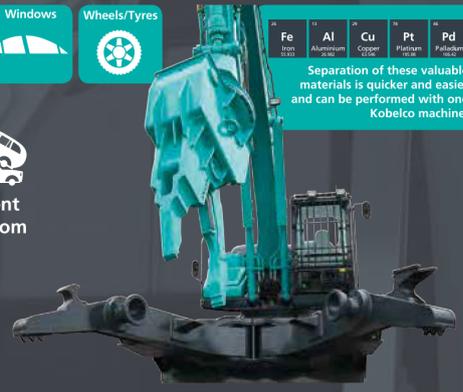
60 vehicles >
One operative in a Kobelco Car Dismantling machine.



Improved recovery rate of rare earth metals

Fe Iron	Al Aluminum	Cu Copper	Pt Platinum	Pd Palladium
------------	----------------	--------------	----------------	-----------------

Separation of these valuable materials is quicker and easier and can be performed with one Kobelco machine.



株式会社 小松建設機械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成都神鋼工程機械(集團)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		